

시리아 난민 위기가 레바논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Chris Yessayan (Head of Technical Qualifications Unit,
National Employment Office, Leban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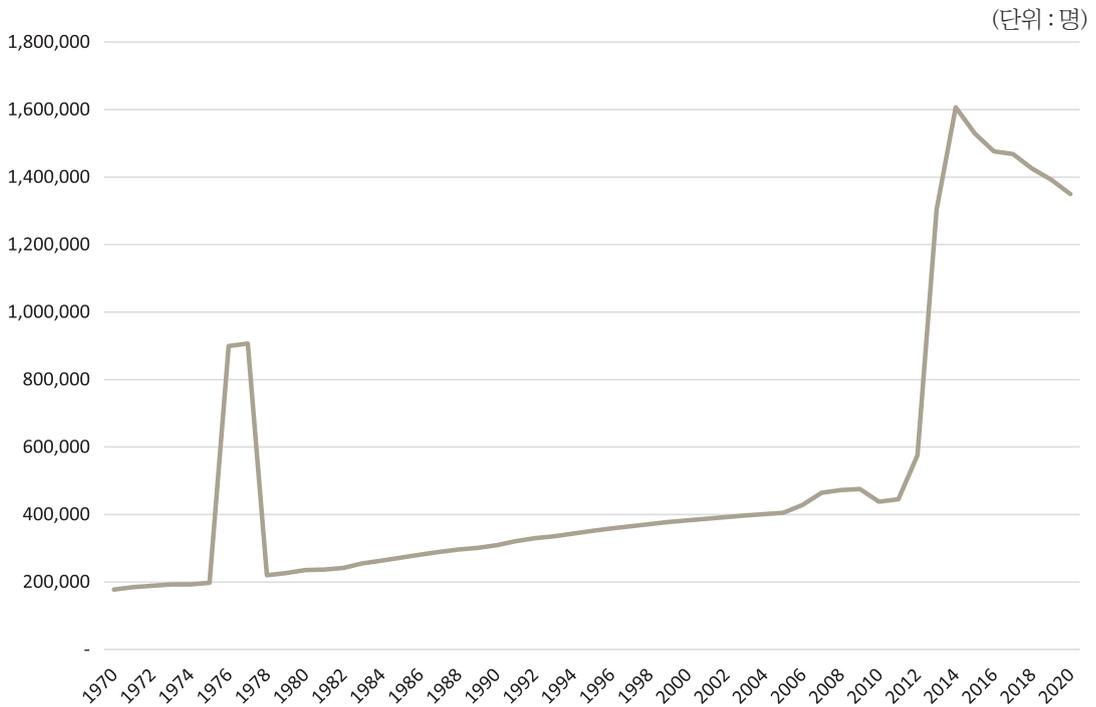
■ 머리말

2011년 3월 시리아 내전이 발발하자 이웃 국가인 레바논은 전화(戰火)를 피해 살 곳을 찾아 떠난 시리아 유민 수십만 명의 주요 목적지가 되었다. 시리아 난민 유입 초기에 레바논 정부는 모든 시리아인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사실 레바논에는 이미 수천 명의 시리아인이 수십 년간 거주하며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리아 내전이 장기화되면서 증가한 시리아 난민 유입은 이미 취약한 레바논의 경제 인프라에 큰 부담이 되었다. 많은 전문가는 현재 레바논이 겪고 있으며 좀처럼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 재정 붕괴의 주된 요인으로 지난 10여 년간 지속된 시리아 갈등과 그로 인한 여파를 꼽는다. 이 글에서는 시리아 난민이 레바논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조명하고자 한다.

■ 시리아 난민의 레바논 유입

시리아 난민은 2011년부터 레바논에 대규모로 유입되기 시작했고 이는 레바논 정부가 난민의 추가 입국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2014년 6월까지 계속되었다. 유엔난민기구(UNHCR)가 시리아 난민 등록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한 2013년 2월 당시 레바논 전역에 퍼져 있는 시

[그림 1] 레바논 내 난민 규모 추이(1970~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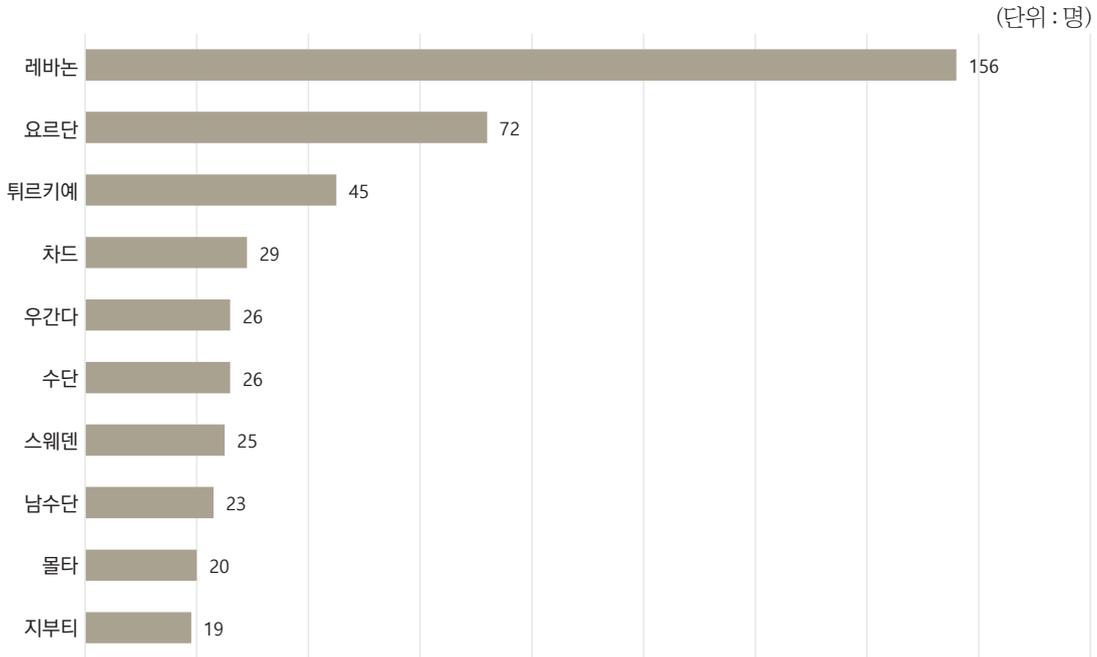
자료: The World Bank(2022), "Refugee Population by Country or Territory of Asylum - Lebanon", <https://data.worldbank.org/> (2022.6.4).

리아 난민은 28만 91명이었다.¹⁾ 이후 시리아 곳곳에서 무력 분쟁이 심화되면서 2014년 9월 기준 레바논 내 시리아 난민은 119만 1,934명에 달했으며,²⁾ 레바논 정부가 밝힌 시리아 난민 규모는 150만 명에 육박했다. UNHCR이 2022년 4월에 발표한 최신 자료에 의하면 현재 레바논 내 시리아 난민은 83만 9,086명이다.³⁾ 여러 해에 걸쳐 지속적으로 감소하기는 했지만, 레바논은 여전히 인구 1인당 난민 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이다.

UNHCR에 의하면, 시리아 난민의 수가 정점에 달했을 당시 난민의 80%는 여성과 아동이

- 1) UNHCR(2013), "Lebanon Registration Daily Stats 13 February 2013", <https://data.unhcr.org/> (2022.6.4).
- 2) UNHCR(2014), "Syrian Refugees in Lebanon - UNHCR Data Portal", <https://data.unhcr.org/> (2022.6.4).
- 3) UNHCR(2022), "UNHCR Lebanon : Fact Sheet, April 2022", <https://reliefweb.int/> (2022.6.4).

[그림 2] 인구 1,000명당 난민 수가 가장 많은 상위 10개 국가(2018년)



자료: McCarthy, N.(2019), "Lebanon Has By Far the Most Refugees Per 1,000 Population", <https://www.statista.com/> (2022.6.4).

었으며 등록된 난민 아동 중 77%는 11세 미만이었다.⁴⁾ 시리아 국경에 위치한 베카주는 레바논에서 시리아 난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으로, 시리아 난민의 3분의 2 이상이 레바논 최빈곤 지역인 베카주와 북부의 아카주에 거주하고 있다.

시리아 위기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레바논 및 국제 공무원 모두 실제 시리아 난민의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에 동의한다. 레바논 인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시리아 난민은 레바논의 인프라와 역량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 한 UN 직원은 시리아 난민의 대규모 유입에 대해 18개월에 걸쳐 약 8천만 명의 멕시코인이 미국에 입국한 것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⁵⁾

4) UNHCR(2014), "UNHCR - Lebanon - UNHCR Compiled Monthly Update - September 2014", <https://data.unhcr.org/> (2022.6.4).

5) UN News, "Lebanon Cannot Bear Brunt of Syrian Refugee Crisis Alone, UN Relief Official Warns", 2014.3.18.

<표 1> 레바논 지역별 시리아 난민의 분포(2014년)

(단위: 명, 수, %)

		합계	비율
베이루트 및 레바논 중부 (마운트 레바논)	인원	321,725	27.0
	가구	81,451	28.7
레바논 북부	인원	294,596	24.7
	가구	74,138	26.1
베카	인원	435,910	36.6
	가구	96,919	34.1
레바논 남부	인원	139,703	11.7
	가구	31,391	11.1
레바논 전체	인원	1,191,934	100
	가구	283,899	100

자료: UNHCR(2014), "Syrian Refugees in Lebanon - UNHCR Data Portal", <https://data.unhcr.org/> (202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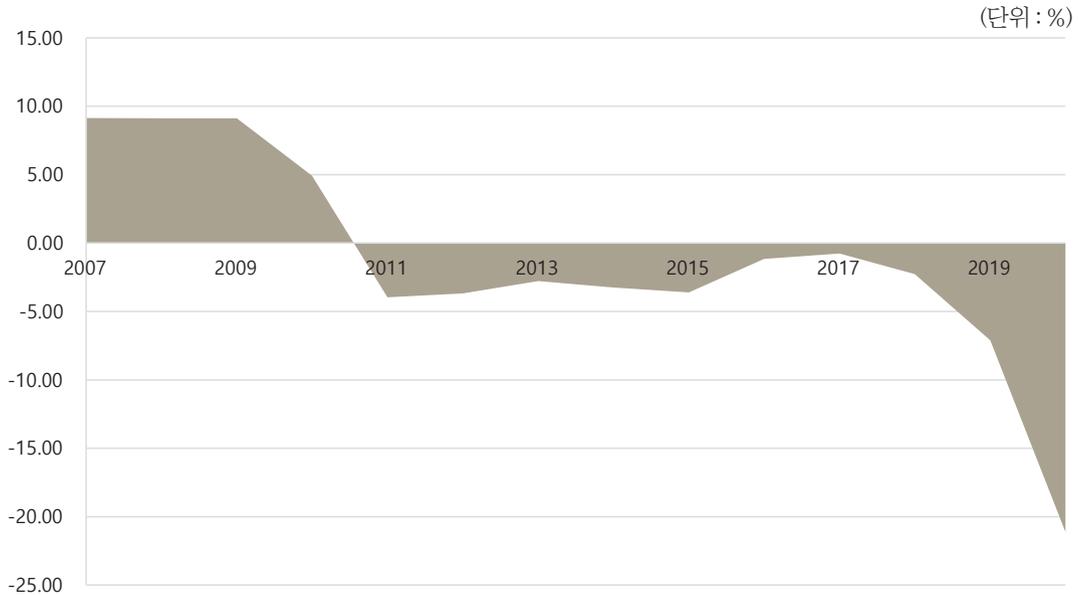
■ 시리아 난민이 레바논에 미친 거시경제적 영향

2008년 전 세계적인 경제침체 당시 레바논은 GDP 성장 수치가 비교적 높고 안정적이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2011년 시리아 난민이 대거 입국하면서 GDP 성장률이 떨어지고 관련 지표들이 급락하면서 2011년부터 마이너스 수치들이 기록되기 시작했다. 2012~2015년 사이 1인당 GDP는 8.3% 감소했다.⁶⁾

하지만 이것이 전적으로 난민 때문은 아니다. 시리아는 레바논의 주요 무역 상대국이자 수출 경유지이기 때문에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레바논에서 아랍만, 요르단 및 이라크로 가는 상업 육로가 사실상 차단되었고, 소규모 무역국인 레바논은 한정된 범위의 상품을 수출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이 드는 해상 운송에 의존해야 했다. 이러한 비용상승에 따라 레바논의 지역 시장 점유율이 크게 낮아졌다. 또한 시리아 갈등이 레바논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6) The World Bank(2016), "Lebanon Economic Monitor - The Big Swap : Dollars for Trust", <https://documents1.worldbank.org/> (2022.6.5).

[그림 3] 레바논 1인당 GDP 성장률 추이(2007~2020년)



자료: The World Bank(2022), “GDP Per Capita Growth (Annual %) - Lebanon”, <https://data.worldbank.org/> (2022.6.5).

<표 2> 시리아 난민을 제외 및 포함한 거시경제 지표 비교(2012~2015년)

	시리아 난민 제외				시리아 난민 포함			
	2012	2013	2014	2015	2012	2013	2014	2015
인구(백만 명)	4.44	4.49	4.55	4.65	4.92	5.29	5.61	5.85
1인당 GDP(미국달러)	9,729	9,870	10,058	10,130	8,774	8,389	8,149	8,048
1인당 GDP 성장률(%)	1.0	-0.3	0.6	-0.9	-4.7	-6.0	-4.1	-2.8

자료: The World Bank(2016), “Lebanon Economic Monitor - The Big Swap: Dollars for Trust”, <https://documents1.worldbank.org/> (2022.6.5).

레바논 경제의 중요한 자원인 관광업이 큰 타격을 받았다.

세계은행은 시리아 난민이 레바논 경제에 미친 영향을 단독으로 평가하기 위해 2015년 GDP 성장률을 시리아 난민을 고려한 수치와 고려하지 않은 수치로 나누어 발표했다. 시리아 난민을 감안하면 2012~2015년 1인당 GDP는 8.3% 하락했고 총 GDP는 7억 2,600만 달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난민을 배제한 1인당 GDP는 4.1% 증가해 총 GDP는 4억

달러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난민이 미치는 영향의 상당 부분이 비공식 경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GDP 수치는 난민이 레바논 경제의 생산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전부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시리아 난민 유입 이후로 레바논 국민의 생활 수준이 크게 저하되었다는 점이다.

■ 시리아 난민의 고용가능성

레바논과 시리아는 1993년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양국 국민은 상대 국가에서 거주, 근무, 취업 및 경제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레바논 당국은 취업허가증이 없는 미등록 시리아 노동자나 레바논 내에서 무허가 사업장을 운영하는 시리아인에 대해 늘 관대했는데, 이는 시리아 내전이 발발하기 훨씬 전부터 레바논의 여러 경제 부문이 값싼 시리아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리아 노동력이 레바논 노동시장에 유입되기 시작한 시점은 1960년대로 거슬러올라가는데, 당시 오일머니의 호황으로 레바논 청년들이 걸프만으로 취업 이민을 선택하던 시기였다. 레바논 노동부에 의하면 1970년 레바논의 경제활동인구가 57만 2천 명이었는데 이미 시리아인 노동자가 27만 9,541명에 달했으며 이들은 주로 건설업, 공공사업 및 농업 부문에 고용되어 있었다. 1972년에는 비숙련 건설 노동자의 90%가 시리아인이었다.⁷⁾

시리아인이 레바논에서 취업을 하려면 취업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시리아인 노동자는 주로 비공식 부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시리아인에게 매년 발급되는 취업허가 건수는 매우 적으며 따라서 이 수치를 시리아인의 레바논 노동시장 참여 실태를 보여주는 지표로 볼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최근 통계에 의하면, 2013년 시리아 노동자의 취업허가 최초 신청은 508건, 갱신 신청은 725건에 불과했다.⁸⁾ 대다수 시리아인이 계약을 맺지 않는 비공식 일자리나 미

7) Chalcraft, J.(2009), *The Invisible Cage : Syrian Migrant Workers in Lebanon*, London : Stanford University Press, pp.55~79.

8) Central Administration of Statistics(2013), "2013 Statistical Yearbook", <http://www.cas.gov.lb/> (2022.6.6).

<표 3> 15세 이상 시리아 난민과 레바논인의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시리아 난민(2013년)	레바논인(2007년)
남성	70	67
여성	19	21
전체	47	43

자료: ILO(2014), "Assessment of the Impact of Syrian Refugees in Lebanon and their Employment Profile", <https://www.ilo.org/> (2022.6.6).

등록 사업장의 일자리를 선호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리아 노동자와 이들을 고용한 레바논 사용자 모두 취업허가를 전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3년에 ILO가 시리아 난민 고용에 대해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조사 대상 난민의 47%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2007년 기준 레바논 국민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매우 유사했다.⁹⁾

시리아 난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레바논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남부 레바논의 시리아 난민 경제활동참가율이 61%로 가장 높았고, 시리아와 접경한 북부 아카 지역에서 50%로 가장 낮았다. 연령별로는 25~34세 난민의 경제활동참가율이 57%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35~54세에서 54%를 기록했다. 교육수준도 경제활동참가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1%, 대졸자는 66%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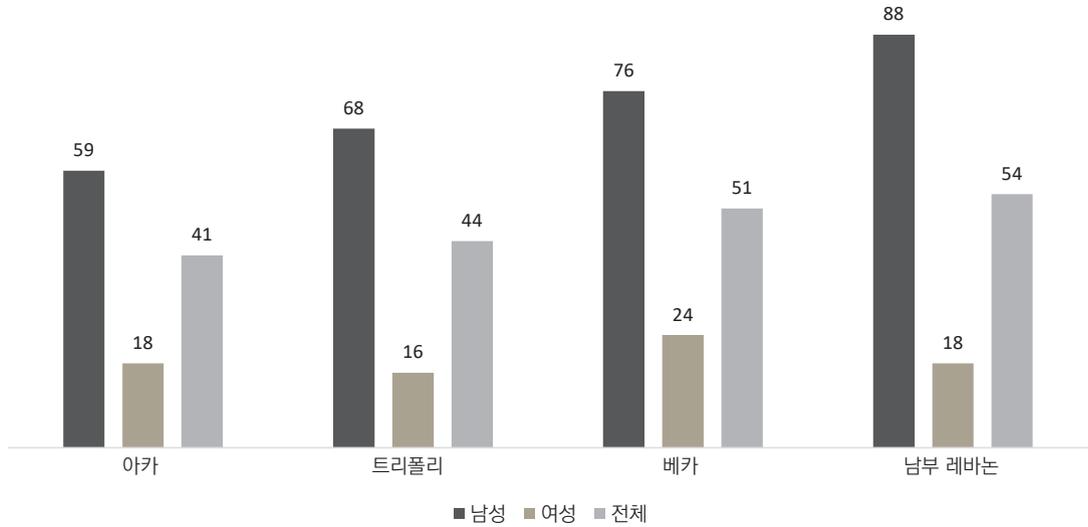
또한 시리아 난민의 직종별 분포에서는 운전기사나 가사도우미와 같은 가사 및 개인서비스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농업과 건설업 직종이 각각 뒤를 이었다. 이들 직종은 모두 저숙련·저소득 직종에 속한다. 반면 전문 기술자 및 전문직 등 고숙련 직종에 고용된 시리아 노동자는 소수에 불과했다. 남성 난민 노동자는 건설업, 도·소매업 등 다양한 직종에 고용된 반면, 여성 난민 노동자의 경우 70%가 농업(작물 생산 또는 축산)이나 돌봄 및 가사도우미 등 가사 업무에 종사했다.

시리아 난민 노동자의 숙련도를 살펴보면 조사 대상의 45% 이상이 비숙련직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그중 대다수는 농업, 건물 관리, 운전 및 가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약 43%는

9) 레바논 전국 차원의 경제활동인구조사가 정기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있어 ILO 조사에서도 레바논 경제활동참가율 관련 수치로는 가장 최근의 신뢰할 만한 조사 결과인 2007년 데이터가 사용되었다.

[그림 4] 15세 이상 시리아 난민의 지역별 및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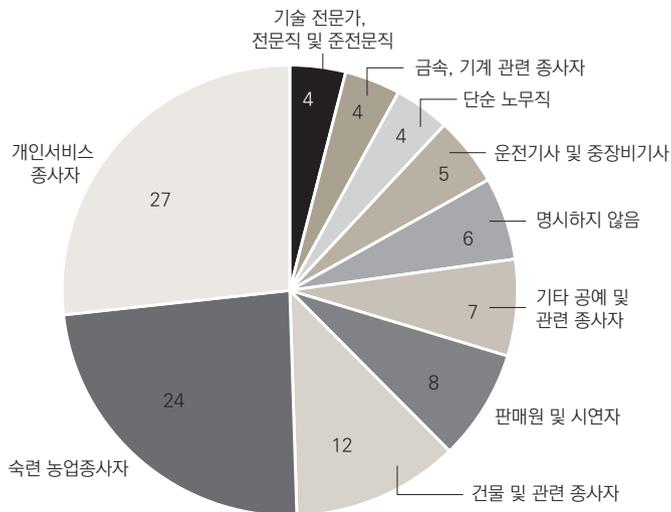
(단위 : %)



자료 : <표 3>과 동일.

[그림 5] 시리아 난민의 직종별 분포

(단위 : %)



자료 : <표 3>과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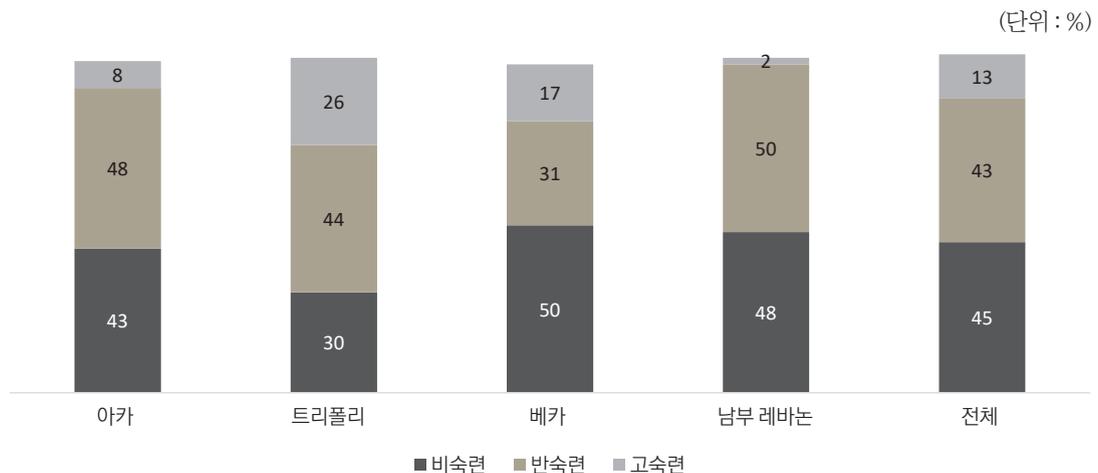
반숙련 직종인 카페트 제작, 금속 및 식품 가공 등에 종사하고 있었다. 고숙련 직종이나 교사, 재무관리, 무역업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난민은 소수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레바논 북부 트리폴리 시에 숙련 노동자가 가장 많았고, 베카주에 비숙련 노동자가 가장 많았다.

시리아 난민의 월평균 소득은 41만 8천 레바논 리라(LL)인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의 급여 및 임금에 관한 전국 단위의 통계자료는 없지만, 이들의 소득은 최저임금이 67만 5천 리라인 레바논 전국 평균 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임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레바논인 대신 시리아인을 고용하면 금전적으로 큰 이익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시리아 난민의 72%는 시간, 일, 주 또는 계절 단위로 고용되어 있으며 23%만이 정기적인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체로 시리아인이 예전부터 현재까지도 비공식 노동자로 고용되어 왔다는 사실과 상통한다. 월급 노동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베카, 가장 낮은 지역은 트리폴리였다. 그리고 시리아 노동자의 86%는 어떠한 직장 내 복리후생 혜택도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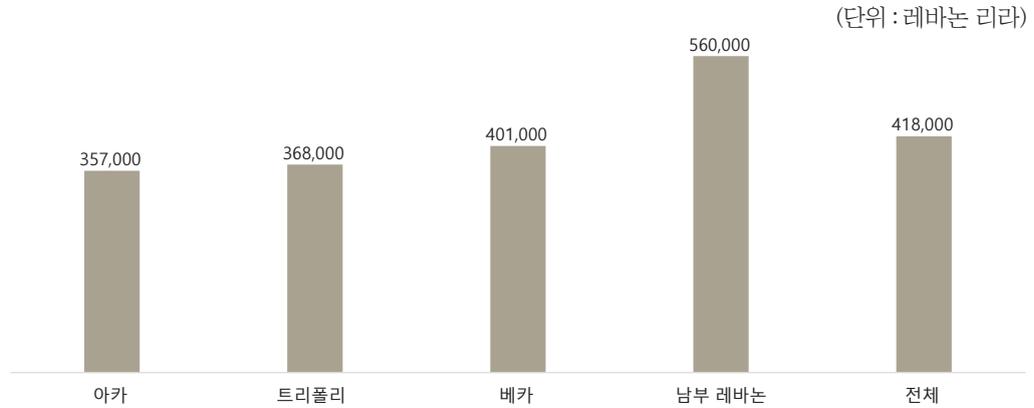
시리아 난민 노동자는 레바논 노동자에 비해 평균 노동시간이 길다. 평균 남성 난민 노동자는 주 50시간, 여성 난민 노동자는 주 30시간 근무했다. 반면 전국 통계에 따르면 레바논 노동자의 절반은 평균 주 48시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 지역 및 숙련도별 시리아 난민 노동자 분포



자료: <표 3>과 동일.

[그림 7] 시리아 난민의 지역별 월평균 임금



자료 : <표 3>과 동일.

<표 4> 지역별 시리아 난민 노동자의 고용형태 분포

(단위 : %)

	아카	트리폴리	베카	남부 레바논	전체
시급제	6	10	2	-	4
일급제	54	54	52	65	56
주급제	11	-	-	4	5
월급제	19	9	33	25	23
계절직	5	15	11	-	7
기타(정해진 시간 없음)	5	12	2	6	5
전체	100	100	100	100	100

자료 : <표 3>과 동일.

<표 5> 직장 내 복리후생별 시리아 난민 노동자 분포

(단위 : %)

복리후생 유형	비율
혜택 없음	86
건강보험	1
교통	2
숙소	2
연차/병가	9
전체	100

자료 : <표 3>과 동일.

■ 대규모 시리아 난민 유입에 대한 레바논 노동시장의 대응

시리아 난민이 레바논 노동시장에 유입되면서 특히 시리아 내전 이전부터 이미 포화상태에 있었던 비공식 부문의 실업률이 악화되었다. 시리아 난민 노동자는 비숙련 및 저학력의 노동력, 특히 값싸고 다루기 쉬운 노동력을 공급한다. 이들은 장시간 노동, 저임금 및 전무한 복리후생이 특징인 열악한 노동조건을 기꺼이 감내한다. 결과적으로 시리아 난민은 레바논 구직시장이 과밀화된 원인으로 여겨지고 레바논인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는 비난을 받으며 레바논인과 시리아 난민 사이의 적대감이 악화되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의하면 시리아 노동자의 유입으로 레바논 농업 종사자의 일당이 최대 60% 감소했다.¹⁰⁾ 베카주 발벡 시 비숙련직의 일당이 30% 줄었고 시리아와의 무역 및 밀수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북부 아카주 와디 칼레드 시의 비숙련직 일당은 50% 감소했다.¹¹⁾

사업체와 지주들에게는 난민 유입이 이득이 되었다. 이들은 사업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저임금의 시리아 노동자를 고용함으로써 더 많은 수익을 거두었지만 레바논 실직자들은 곤궁에 처하게 되었다. 그 결과 많은 레바논 노동자가 자신들이 해고되고 그 자리를 시리아 노동자에게 빼앗길 것을 우려하여 더 낮은 임금과 더 열악한 노동조건도 받아들일겠다고 나섰다. 한 레바논 노동자는 사장으로부터 급여를 절반으로 낮추지 않으려면 일을 그만두라는 선택을 강요받았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사장이 자신을 해고한 뒤 곧바로 시리아인을 채용했다고 증언했다. 월 75만 리라의 임금을 받던 한 노동자는 임금이 50만 리라로 삭감된 것을 보고 항의하자 사용자는 오히려 같은 비용이면 시리아인 두 명을 쓸 수 있다고 반박했다고 한다.¹²⁾ 발벡 시의 한 지주는 언론 인터뷰에서 “포도 수확 작업에 시리아인 100명을 고용했다. 이들의 임금은 레바논인에 비해 훨씬 낮다. 시리아와의 무역 중단으로 입은 손해 때문에

10) FAO(2013), “Agricultural Livelihoods and Food Security Impact Assessment and Response Plan for the Syria Crisis in the Neighbouring Countries of Egypt, Iraq, Jordan, Lebanon and Turkey”, <https://www.fao.org/> (2022.6.7).

11) World Vision(2013), “Under Pressure : The Impact of the Syrian Refugee Crisis on Host Communities in Lebanon”, <https://www.wvi.org/> (2022.6.8).

12) Al-Akhbar, “اليد العاملة السورية تخفض أجور اللبنانيين”, 2013.4.30.

비용을 줄여야 한다.”라고 인정했다.¹³⁾

이와 같이 레바논 상류층은 시리아인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사업체 운영 비용을 낮춰 이득을 취한 반면, 레바논의 최빈곤층과 취약계층은 시리아인과의 경쟁에서 생계를 위협받고 고용기회 박탈, 임금 감소 및 더욱 열악해진 노동조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저소득층 다수는 레바논 사용자들이 윤리에 앞서 이윤을 추구하며 탐욕스럽고 반애국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비난했다.

게다가 시리아인이 소유한 신생 사업체가 늘어나면서 특히 베카, 아카, 트리폴리 지역의 레바논인 소유 상점과 식당들이 가격 경쟁에서 밀릴 위기에 처했다. 시리아인 소유의 영세 사업체 다수가 낮은 가격에 들어온 밀수품을 판매하면서 레바논인 상인 및 사업자들의 생계는 더욱 어려워졌다. 베카에서는 약 380곳의 소규모 업체가 새로 생겨났는데, 그중 식당이 260여 개, 제과점, 식료품점, 카페, 이미용실 및 기타 소규모의 일상적 서비스와 상거래를 위한 업체들이 120여 개에 이른다. 각 업체가 3~4명의 시리아 노동자를 고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총 1,2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시리아 노동자에게 돌아가는데,¹⁴⁾ 저렴한 가격에 이끌려 많은 소비자가 이들 상점 및 업체에 몰려들었다. 결과적으로 레바논인 소유의 상점과 업체는 경쟁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할 수밖에 없었다.

레바논 자영업자 역시 시리아인과의 경쟁으로 피해를 입었다. 항상 시리아 노동자가 노동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농업 분야의 현상이 다른 부문으로까지 확산된 것이다.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레바논 전역에서 시리아인 목수, 정비공, 용접공, 수리공, 배관공, 전기공, 조경사, 도장공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자 수백 명의 레바논인 기능공이 일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시리아인 기능공의 기술이 더 뛰어나고 적은 보수로 더 열심히 일한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어 있다. 많은 레바논인 택시기사 역시 이미 포화상태인 택시 운송업에서 시리아인과의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불만을 품고 있다.

한편 레바논의 분화된 정치 체제로 인해 국가 차원의 의사결정은 항상 부재한 상태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시리아 난민 노동자가 레바논 노동시장으로 대거 유입되는 상황에 대해 레바

13) Al-Bank Al-Dawli, “لبنان يتحمل وطأة الآثار الاقتصادية والاجتماعية للصراع السوري”, 2013.9.24.

14) Al-Akhbar, “افتتاح 260 مطعمًا سورياً في البقاع صراع الشاورما اللبنانية - السورية”, 2013.4.20.

는 정부가 어떠한 공식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유럽과 서방에게
는 여러 지정학적 이유로 시리아 난민이 본국으로 귀환하거나 유럽으로 이동하는 것보다 레
바논 영토에 머무는 것이 더 이로웠기 때문에, 난민 위기가 발생한 시기에 집권했던 레바논
정부들이 서방의 요구에 맞추어 고의적으로 위기 대응에 소홀했다는 인식이 레바논 국민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관할 지역 내의 시리아인 노동자에 대해 통금 및 임금 삭감
을 강행하는 등의 대응을 한 지자체들도 많았다.¹⁵⁾ 예를 들어 2021년 발벡 시는 시리아 남성
노동자는 4만 레바논 리라 이상의 일급을 받을 수 없으며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근
무가 가능하고, 시리아 여성 노동자의 시급은 1만 레바논 리라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¹⁶⁾ 시
리아인은 외화로 국제 원조도 받고 있는 반면 레바논 리라의 가치는 금융위기에 따라 급락한
점도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시리아 난민 위기는 기존의 지대추구 경제모델이 가진 구조적 문제의 당연한 결과로서 레
바논 노동시장이 안고 있던 결함들이 더욱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레바논 경제의 지대추
구 및 소비주의 특성과 레바논 국민의 사회적 위신을 중시하는 사고방식은 은행 및 금융업의
선호로 이어지면서 농업, 공업 및 상업의 붕괴를 촉발했고 이에 따라 부문 간 상당한 실업 격
차가 나타났다. 레바논의 지대추구 경제모델에서는 고학력의 노동력을 생산하기 위해 학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그 노동력을 석유가 풍부한 걸프만 국가들에 수출하여 매년 그들의 보수를
본국으로 송금하게 한다. 이로 인해 레바논인 구매력의 인위적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었고, 특
정 직종을 경시하던 전통적인 경향이 더욱 강화되어 일부 직종은 외국인의 일자리로 한정되
었다. 실제로 많은 레바논인이 단순노무직으로 일하면서 육체적으로 고생하느니 차라리 실직
하거나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숙련된 기능공과 상인 양성을 위한 직업
교육훈련은 경시되며 낙제생들이 밟는 경로로 치부된다. 결국 레바논 국민들이 기피하는 영
역은 생활수준이 낮거나 위험한 국가에서 온 노동자들이 일하면서 레바논에 정착하고, 아울
러 레바논 경제를 지탱하는 형태로 고용구조가 변하고 있다. **KLI**

15) Human Rights Watch, "Lebanon: At Least 45 Local Curfews Imposed on Syrian Refugees", 2014.10.3.

16) L'orient Le Jour, "Ras Baalbeck Municipality Sets Curfew and Daily Wage Cap for Syrian Workers", 2021.11.11.